

‘핵심 필승조’ 전상현 “제 역할 다해 2연패 이룰 것”

KIA타이거즈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지난해 시즌 완주에 팀의 우승까지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뤘죠. 올해도 제 역할을 완벽히 해내서 2연패를 이뤄보겠습니다.”

지난해 KIA타이거즈의 필승조 중 유일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며 묵묵히 헌신한 전상현이 새해에도 같은 꿈을 꾀다. 올해도 풀타임 필승조로 자리매김하며 팀의 연패 도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전상현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비시즌이지만 광주에 남아 겨울을 보내고 있다.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스프링 캠프 출발 전까지 유지할 것”이라며 “(이)준영이 형, (윤)중현이 형이랑 잠시 여행을 다녀오기는 했다. 그래도 길게 쉴 수는 없다”고 근황을 밝혔다.

짧은 휴식은 새 시즌을 완벽히 준비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전상현은 지난해 코칭스태프의 전폭적인 믿음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필승조 중 유일하게 풀타임을 소화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한 번도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목표였고 그다음은 팀의 우승이었다”며 “정말 운이 좋게도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뤘다. 좋은 경험을 많이 쌓은 한 해였던 것 같다”고 지난해를 회상했다.

이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이라며 “이범호 감독님부터 정재훈 코치님, 이동걸 코치님, 박창민 코치님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과 정 코치는 전상현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보냈던 이들이다. 전상현은 시즌 초반 부침을 겪었지만 고비를 이겨내고 필승조의 핵심 자원으로 우뚝 섰다. 이 코치와 박 코치 역시 전상현의 멘탈과



지난해 필승조서 유일 풀타임 불펜 자원 불구 두 자릿수 승리 한국시리즈서도 결정적 활약 새 시즌 “팀 위해 최선” 다짐

체력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준 이들이다. 전상현은 “기복이 있었음에도 이범호 감독님과 정재훈 코치님의 믿음 덕분에 끝까지 시즌을 잘 보낼 수 있었다”며 “이동걸 코치님은 스프링캠프에서 올해 목표가 저를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뿐만 아니라 멘탈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기울이셨다. 절대 자신을 낮추거나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며 “박창민 코치님도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여러 시스템으로 몸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고 부연했다.

덕분에 전상현은 지난해 개인 통산 최다인 66경기에서 66이닝을 소화하며 10승 5패 19홀드 7세이브와 평균자책점



KIA타이거즈 전상현이 지난해 10월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한국시리즈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 6회초 무사 1·2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낸 뒤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4.09를 기록했다. KBO 리그 통산 아홉 번째로 10승-10홀드라는 진귀한 기록도 챙겼다.

그는 “배움이 많았던 시즌이었다. 잘 막아낸 경기도 있지만 무너진 경기도 있다”며 “좋은 경험과 아쉬운 경험을 모두 느꼈다. 기복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은 최대 수확”이라고 확신했다.

전상현은 올스타전과 한국시리즈라는 뜻깊은 무대에도 올랐다. 올스타전에서 양현종 덕분에 얻은 별명인 섹시 투수 퍼포먼스를 펼쳤고, 한국시리즈에서는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었던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의 주역이 됐다.

그는 “처음 하는 경험이 많았다. 올스타전에도 나가보고 한국시리즈에도 출전했다”며 “풀타임을 치르면서 몸 관리를 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훈련이나 경기 모든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 시즌이었다”고 말했다.

유일한 아쉬움은 팀 코리아에 발탁되지 못한 것이다. 전상현은 프리미어12를 준비하던 팀 코리아의 예비 명단과 훈련 명단에 모두 포함됐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되며 태극마크가 불발됐다.

그는 “팀 코리아에도 선발됐다면 엄청난 한 해가 됐겠지만 제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자리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국시리즈와 소집 훈련을 치르면서 제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선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더 발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팀 코리아에 재도전하기 위해서는 새 시즌에도 맹활약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 시즌 연패에도 도전하는 KIA는 ‘J-J-J 트리오’로 불리던 필승조를 장현식과 전상현, 정해영에서 조상우와 전상현, 정해영으로 개편하며 더 강력한 전력을 구축했다.

전상현은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뛰면서 중요한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투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믿음에 보답하자고 생각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며 “올해도 목표는 풀타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올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전격 중지

허정무 가치분 신청 인용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투표 하루를 앞두고 전격 중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지난 7일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 티즌 이사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투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대한축구 협회를 상대로 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가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에는 허 전 이사장을 비롯해 정몽규 제52·53·54대 대한축구협회장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출마해 3파전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거인단 구성 절차와 선거 운영위원회 명단 비공개 등이 지적되며 마지막 절차인 투표 직전 선거가 중지됐다.

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천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운영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을 공개하지 않아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가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준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현재 69세인 허 전 이사장은 닷새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나이 제한에 따라 후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결정문에 대해 선거운영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며 “선거운영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어떻게 일정을 짜고 어느 부분을 개선하고 변화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폭풍 영입’ 전남드래곤즈, 1부리그 승격 도전 가속도

김도윤·윤민호·양지훈 등



김현석 신임 감독 체제로 1부리그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드래곤즈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틀 연속 광폭 행보를 보이며 선수단 개편에 가속도를 붙였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는 공격수 김도윤, 윤민호와 미드필더 양지훈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도윤과 윤민호, 양지훈은 모두 20대 중반의 젊은 피다. 이들 모두 즉시 전력으로 활용 가능한 만큼 김 감독은 공격 파트에서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구상이다.

김도윤은 재기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최



김도윤



윤민호



양지훈

전방 공격수다. 2017년 중랑FC 소속으로 부천FC1995의 부름을 받으며 고교에서 프로로 직행한 그는 K3리그 파주시민 축구단으로 향해 담금질을 거쳤다. 2023년 안산그리너스FC에서 프로 무대 복귀에 성공한 김도윤은 K리그 통산 33경기에서 5득점과 2도움을 기록했다.

윤민호는 K3리그를 휩쓸고 K리그1에 직행했던 공격형 미드필더로 측면 공격수

로도 활용 가능하다. 울산 HD FC U-18(현대고)에서 경주시민축구단으로 향했던 그는 2020년 K3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뒤 김포FC를 거쳐 2022년 포항스틸러스에 입단, 프로 무대에 입성했고 K리그 통산 25경기에서 1득점과 2도움을 올렸다.

양지훈은 주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 외에도 최전방과 측면 공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자원이다. 재현고와 연세대를 거쳐 대전하나시티즌과 충북청주FC에서 활약한 그는 K리그 통산 51경기에서 4득점과 3도움을 만들어냈다.

한규빈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제주항공 참사에 기부금 전달

“유가족 슬픔 조금이나마 위안되길”

프로야구 선수들이 제주항공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KPBPA)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제

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에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KPBPA 제13대 회장인 KIA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은 “제주항공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다”며 “프로야구 선수들도 함께 애도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유가족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